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588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10월 1일 (음력 8월 22일) 월요일

"광주형 일자리 위기…노동계 대승적 협력해야"

광주상의, '현대차 완성차 공장 설립 불참 선언' 우려

"최근 지역경제 암담…정부 전폭적 지원도 절실한 때"

광주상공회의소가 좌초 위기에 놓인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 설립에 노동계가 다시 한 번 마음을 열고 대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상공회의소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현대자동차의 투자의향서 제출이 임박한 시점에 지역 노동계가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 불참을 선언한 것에 대해 우려감을 표명했다.

이러한 우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 100대 과제로 선정돼 전국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있지만 노동계의 불참 선언으로 현대차가 투자의향을 철회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이 무산될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광주상의는 "현대차가 광주시에 투자 의향을 밝히고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 설립까지 오게 된 데는 지역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노사민정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민정 합의에도 불구하고 최근 노동계가 '임금수준·근로시간·소통부재' 등의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불참을 선언한 것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바라는 지역민들의 염원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광주상의는 "최근 지역경제는 제조업 생산의 45%를 담당하는 자동차산업 부진 여파로 전·후방 연관 산업까지 수주와 고용절벽이 이어지는 암담한 상황에 이르렀고, 일자리를 찾기 위한 청년 인구의 유출 규모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계 참여로 10만대 규모의 완성차 생산과 1000여명 정규직의 일터가 될 합작법인이 설립 될 수 있다면,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안정과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상의는 "최근까지 노사민정 대타협을 이끌어 온 한국노총을 비롯한 모든 노동계는 다시 한 번 마음을 열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순항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광주상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 성장을 촉발하는 선례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투자협상부터 공장 설립까지 전 과정에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한 때"라고 밝혔다.

신봉우 기자

함평 주포한옥마을 풍경

지난달 27일 함평군 주포한옥마을 일대에 조성한 억새밸리존에 핑크뮬리와 코스모스가 만개해 관광객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신안 압해~암태 해상교량 명칭 '천사대교'로 확정

총연장 7.22㎞ 국내 4번째로 길어…오는 12월 임시개통 · 내년 4월 준공

신안군 압해도와 암태도를 연결하는 해상교량 가칭 '새천년대교'의 명칭이 '천사대교'로 사실상 확정됐다.

신안군은 최근 군수와 교수, 민간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안군 지명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 의견으로 해상교량 명칭을 '천사대교'로 의결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천사대교'는 오는 12월20일께 임시개통을 거쳐 내년 4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교량이 개통되면 이미 연도된 신안 중부권 주요 5개 섬(자은, 암태, 안좌, 팔금, 자라)과 압해도가 연결돼 목포 등 육지와의 왕래가 자유스럽게 된다.

교량은 총연장 7.22㎞로 사장교(1004m)와 현수교(1750m) 형식이 공존하는 국내 유일의 교량으로 우리나라에서 4번째로 길다.

지난 2005년 예비타당성조사 용역부터 가칭 '새천년대교'로 불리었으나 지역적인 연관성과 상징성 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군은 교량의 상징성과 디자인 등을 연계해 지역 이미지를 높이고, 서남권 랜드마크로 부상시킨다는 전략을 갖고 지명(명칭) 제정에 나섰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군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해상교량의 명칭을 공모했으며, 126명이 30건의 교량지명을 응모했다.

당시 응모에는 '천사대교', '신안대교', '해태대교' 등의 지명이 접수됐다.

군은 천사대교 명칭이 향후 전남도와 국가지명위원회, 국토지리정보원 의결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나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원안대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천사대교는 신안군의 랜드마크 역할은 물론 섬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천사대교의 관광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교량 부근 암태면 신석리 10만㎡ 부지에 근린공원과 높이 33m의 전망타워를 내년에 착공해 2023년 완공할 계획이다.

김광춘 전남서 부취재본부장

Photo 漫評

변해야 산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연설'을 놓고 정치권에서도 '감동'과 '감격'의 탄성이 쏟아졌다. 특히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최고위원은 "큰 감동이고 격한 전율"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평양능라도 5·1경기장을 찾아 15만 평양시민을 향해 연설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어젯밤 문재인 대통령 연설은 8000만 겨레에 큰 감동을 줬다. 5000년을 함께 살았고 70년을 헤어져 살았는데 다시 함께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는 많은 국민의 눈시울을 젖게 했다"고 말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 큰 변화의 물결에 우리 야당과 보수 진영이 함께 해야 한다. 시대가 크게 변하고 있는데 이 흐름과 함께 하지 않고 흐름을 방해하려고 한다면 역사의 대세 앞에 도태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조인호 기자 · 자료사진=뉴시스